

3. 작은 아버지의 가르침



송재 이우:
퇴계의 숙부로 진주 목사,
강원도 관찰사 등 여러
벼슬을 거침, 저술로
송재집 등을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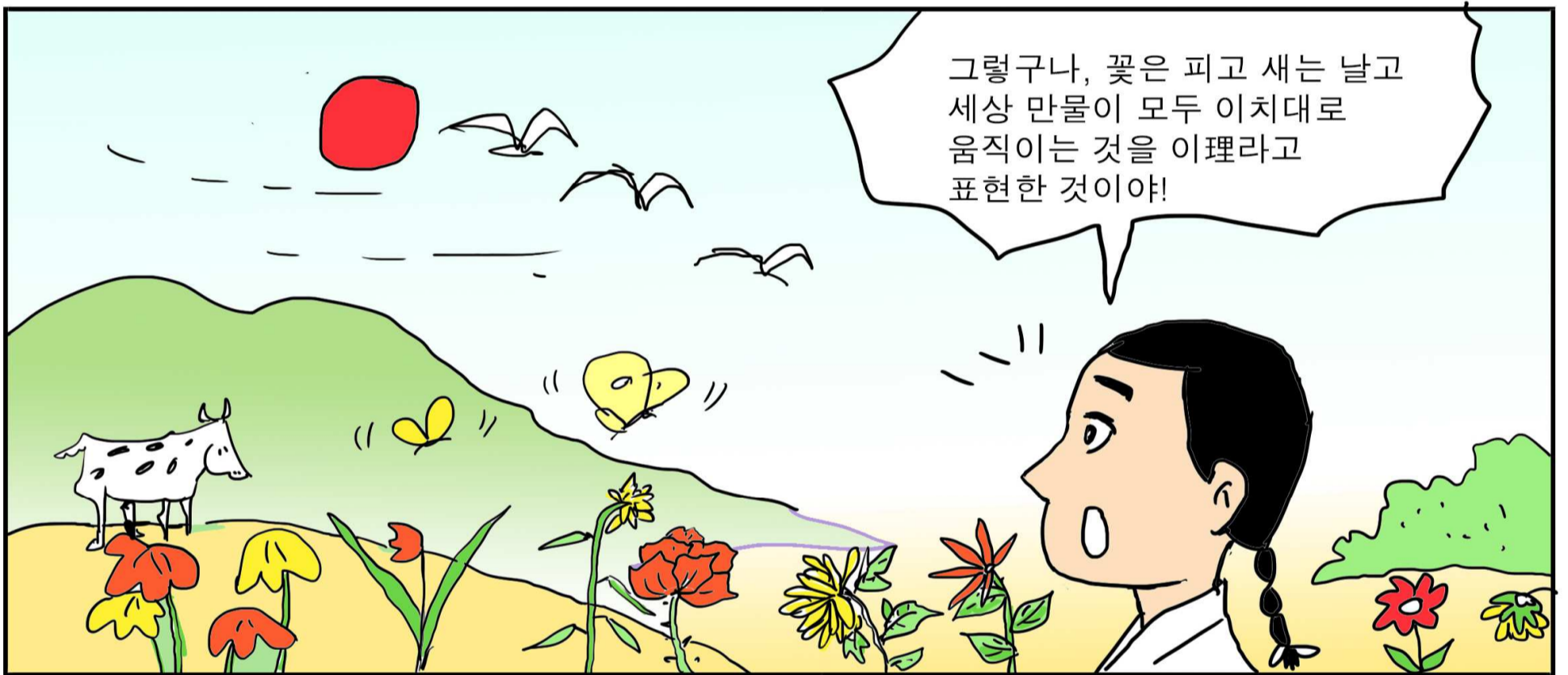
어느날 논어를 읽다가 이理자가 눈에 들어왔다.



무릇, 사물의 옳은 것.



그렇구나, 꽃은 피고 새는 날고
세상 만물이 모두 이치대로
움직이는 것을 이理라고
표현한 것이야!



퇴계가 깨달은 바를
말하니 작은아버지
송재공이 기뻐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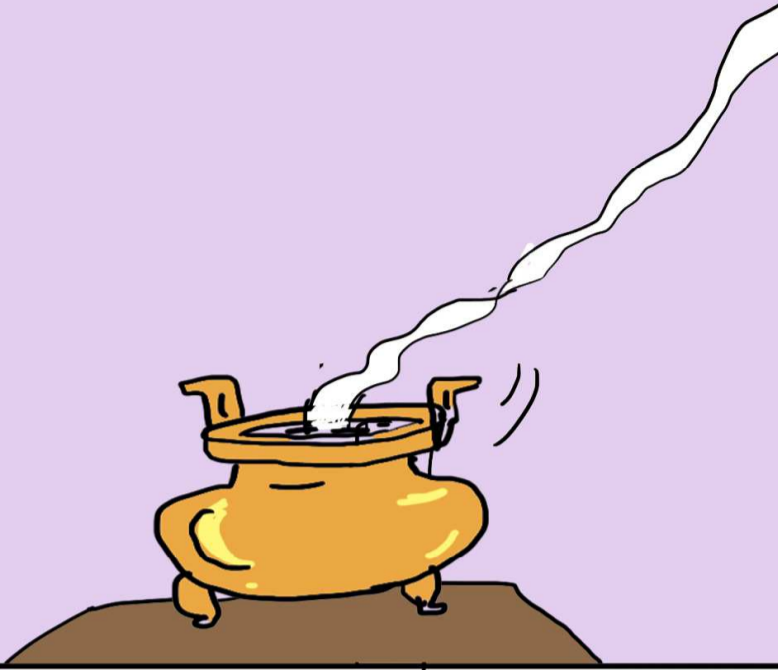
네가 이미
사물의 이치를
터득했구나!



퇴계는 작은 아버지의 가르침으로
학문의 기틀을 닦게 된 것이다.



퇴계가 17세 되던 해에 송재 이우공이 세상을 떠났다.



송재는 강원도관찰사가 되었으나 양친 봉양을 이유로 사직하고 청량정사 등에서 온계 이해, 퇴계 이황 등의 교육에 힘 썼던 것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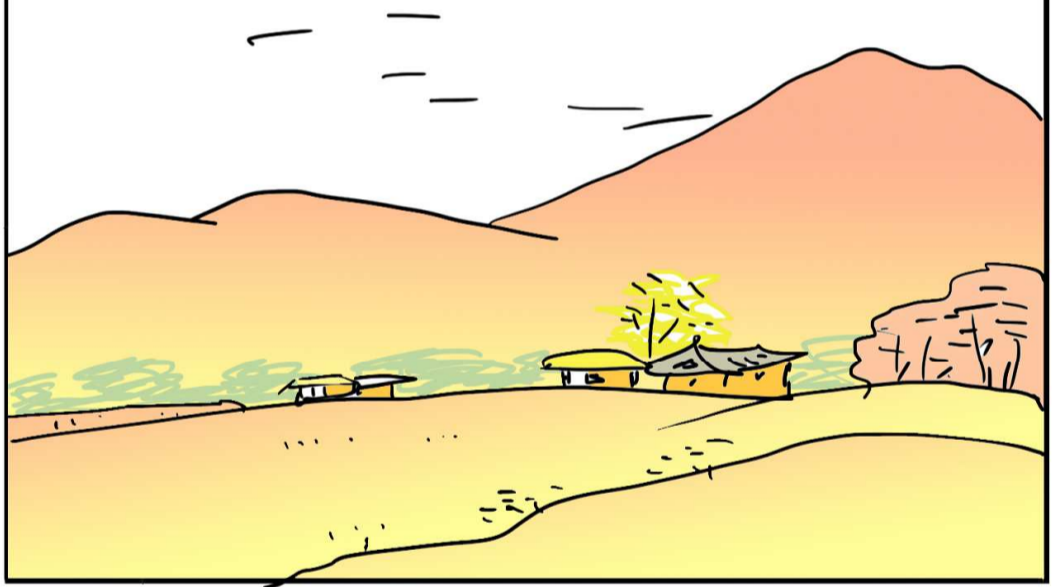
(청량정사)



이제 어느 분한테 가르침을 배워야 하나...?



퇴계가 사는 마을은 시골이라 스승 만나기가 힘들었다.



내가 물으면 작은아버지께서 옳고 그름을 가려주어 크게 진전된 바가 있었는데...



좋아. 이빨이 없으면 잇몸이다. 선생님이 안계시면 스스로 선생님이 되어 공부하는 수 밖에 없다.



사물의 이치를 깊이 궁구해
들어가다보면 분명 스스로
깨닫는 길이 있을 것이야.

窮究

스스로 공부하는 방법을 터득하게 된다.

후일 제자인 학봉 김성일에게 누가 물었다.

선생의
공부 방법은
어떠했습니까?

선생께서는
.....

글자 한 자의 뜻이라도
무심코 지나치지 않고
정밀히 탐구하셨지요.

글을 읽으면 그 이면의 뜻까지
밝혀내야 비로소 다 안다고
하셨답니다. .

아, 궁구라는 것이
바로 그런 의미였군요.

나이 들어서 당시를
퇴계선생께서 회고
하였다.



나는 젊어서 학문에 들어가는 단서와 연구 방법을
알지 못했는데



때로는 밤새도록 탐색하고 사색하기를
마지않아.



결국은 크게 깨친 바가 있었다.



우리도 그렇게
공부하면 선생처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다.



*백세청풍